

201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수시모집 모의논술 예시답안

[문제 1] (200자 내외)

<제시문 1>과 <제시문 2>의 공통 논제는 ‘상황 인식과 대응 태도’이다. <제시문 1> (가)와 (나)의 화자는 당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신의 소극적 태도에 괴리를 느낀다. 반면 <제시문 2>의 화자는 당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방관이나 회피 대신 행동을 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며, 바로 지금이 행동을 취할 적기라고 말한다.

[문제 2] (500자 내외)

<제시문 2>에서 언급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은 1) 적기 행동 대처 2) 고민과 관망으로 일관 3) 즉각 (무모하게 혹은 본능적으로) 행동 대처 4) 상황 회피 등이다. 이 중 1)과 3)은 적극적 대응 방식, 2)와 4)는 소극적 대응 방식으로 분류된다. <제시문 2>의 화자는 2)와 4)의 소극적 대응 방식 대신 1)과 3)에 해당하는 적극적 대응 방식을 지지하는데, 특히 1)의 적기 행동 대처를 주장한다.

<제시문 1> (가) 화자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고민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, 결과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해 방관자적 혹은 회피적 태도를 취한다. <제시문 2> 화자의 적극적인 주된 대응 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, 이것은 문제 상황에 대해 고민만 하거나 회피하는 소극적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.

[문제 3] (400자 내외)

예측 오류의 발생가능성 측면에서 <제시문 3>은 사실을 검증한 법칙이며 예측 오류의 가능성이 낮다. 반면, <제시문 4>에서 관찰 자료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못하므로 이에 근거한 예측은 우리의 기대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여 오류 가능성이 높다. 획득 지식의 신뢰성 측면에서 <제시문 3>은 획득한 지식이 관측의 결과와도 잘 일치했고 예측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한 반면, <제시문 4>는 관찰을 통해 획득된 지식은 빗나갈 수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. 따라서 지식 획득 방법의 정당성 측면에서 볼 때 <제시문 3>은 케플러가 구축한 모델은 관측의 결과 즉 실제 현상과 일치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, <제시문 4>에서 개별적 사실로부터 일반법칙을 추론하는 귀납적 방법은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식획득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.

[문제 4] (500자 내외)

<그림 1>에서 2011년까지의 자료에 근거하여 2012년 권역별 난민 신청자를 예측한다면, 아시아 출신의 신청자 수는 증가하고 중동 출신의 신청자 수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. 그러나 2012년 아시아는 감소했고 중동은 상승했다. 이러한 점에서 관찰된 사실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흠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있다.

이와 더불어 2009년 자료와 2013년 자료를 비교하여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자. 여기서 ‘난민 인정 태도의 변화’란 난민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입장의 변화를 말하는데, 이는 난민 신청자 대비 난민 인정자의 비율, 즉 난민 인정률을 통해 알 수 있다. 우리 정부의 2009년 아시아, 아프리카, 중동 권역별 난민 인정률은 각각 $\frac{59}{230}$, $\frac{11}{77}$, $\frac{4}{12}$ 이었다. 그러나 2013년에는 각각 $\frac{38}{537}$, $\frac{17}{587}$, $\frac{8}{446}$ 으로 바뀌었다. 이처럼 2013년 모든 권역에 대한 난민 인정률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난민 인정이 상당히 인색해졌음을 알 수 있다.